

#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양상과 축조집단에 대하여\*

박성현\*\*

- 
- I. 머리말
  - II. 각 유역별 무기단식 적석묘의 분포 현황 및 구조적 특징
  - III.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양상 및 축조집단 검토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하류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들 적석묘는 기본적으로 단독 혹은 수 기의 매장주체부가 하나의 적석 분구에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집단묘의 경우 기존 묘곽의 한 쪽 벽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묘곽을 덧대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한 분구에 여러 기의 매장주체부가 마련되는 점과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돌을 쌓아 분구를 만들었다는 점은 고구려 적석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북한지역 자료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각 유역의 적석묘와 인근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3세기대부터 임진강 유역에서 등장하여 점차 북한강 유역, 한강 하류, 남한강 유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선 아우라지 적석묘의 경우에는 6세기대까지도 그 전통이 남아있었음이 확인된다. 무기단식 적석묘의 축조집단에 대해서는 고구려, 백제, 예, 마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느 특정 종족이나 집단이라고 비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적석묘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백제와 신라의 중앙 문화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적석묘 축조 전통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백제, 신라와는 달리 무덤에 돌을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예계(濊系) 문화권의 ‘현지세력’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 연구」를 수정·보완하였다.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주제어 :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 연접, 전개양상, 축조집단

## I. 머리말

고구려의 전통 묘제인 적석총은 지상에 돌을 깔고 주검을 안치한 후, 그 위에 다시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무덤이다(강현숙 외, 2020, 142쪽). 그런데 남한지역에서도 흙이 아닌 돌을 쌓아 매장을 마감한 무덤들이 양평 문호리 적석묘 발굴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후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적석묘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고, 근래에는 정선 아우라지와 광주 곤지암리, 그리고 원주 주산리 등지에서도 적석묘가 발굴되면서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하류에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적석묘<sup>1)</sup>가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적석묘에 대한 그간의 연구[표 1]는 그 기원과 축조집단의 계통에 집중되어왔음에도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대규모 적석묘가 발굴조사 되었고, 인근에서 취락유적도 발견됨에 따라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제 한성기 무덤이 확실한 석촌동 고분군을 제외한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하류에 분포한 무기단식 적석묘를 대상으로, 입지와 축조재료, 구조적 특징, 축조시기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양상과 축조집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연구 현황

연구자	연구대상	명칭	계통	기원	축조시기
박한설·최복규 (1982)	춘천 중도 적석묘	적석총	고구려	심귀리 75·92호 양민 168호	기원후 1~2C
권오영(1986)	북한강·남한강 유역	적석총	고구려	고구려 적석총	원삼국시대
최몽룡(1989)	북한강·남한강 유역	적석총	고구려	고구려 적석총	원삼국시대
이형구(1993)	북한강·남한강 유역	백제 적석총	백제	자강도 연무리 2호	원삼국시대
김성태(1994)	연천 삼곶리 적석묘	백제 적석총	백제	석촌동 고분군	기원후 2~3C
박순발(1994)	남한지역	즙석식 적석묘	예	석촌동 고분군	기원후 2~4C

1)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석총(積石塚)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왔다. 이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고구려 적석총과 연계해왔기 때문인데, 사실상 총(塚)이라는 용어는 상위 계층의 고총(高塚)을 뜻한다는 점에서 석촌동 3호분과 같이 규모가 있는 적석총이나 다수의 대형 적석총이 발견되는 고구려 적석총의 한하여 지칭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선 아우라지와 광주 곤지암리, 원주 주산리 유적은 바닥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적석을 한 형태여서 적석묘(積石墓)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강원(1996)	남한지역	적석총	재지	적석식 지석묘	기원후 2~4C 전반
이동희(1998)	남한지역	고구려계 적석총	고구려	자강도 연무리 2호	기원후 1C 후반~3C 후반
이성주(2000)	남한지역	적석분구묘	예맥	적석식 지석묘	원삼국시대
임영진(2003)	남한지역	고구려식 백제식 말갈식	고구려 백제 예	즙석분구묘	원삼국시대
김성태(2004)	연천 학곡리 적석묘	적석총	고구려	고구려 적석총	기원후 2C
유태용·박영재(2006)	남한지역	백제 적석총	백제	석촌동 고분군	기원후 2C 전반~3C 후반
김병근(2007)	임진강 유역	적석총	고구려	전방후원형 적석총	기원후 2~3C
최진석(2008)	남한지역	백제 적석총	백제	석촌동 고분군	기원후 1C 중엽~3C 후반
심재연(2010)	북한강·남한강 유역	적석총	예	즙석분구묘	기원후 3~4C
김승옥(2011)	남한지역	적석분구묘	마한	마한계	기원후 2C 후반~3C 중엽
임성빈(2017)	남한지역	중도식 적석총	재지	적석식 지석묘	기원후 2~4C
정치영(2020)	남한지역	묘곽연접적석총	재지	재지계	원삼국시대
김진영(2022)	중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	현지	현지세력	기원후 3~4C
이만규(2023)	한반도 중부지역	적석총	현지	현지세력	기원후 3~4C

## II. 각 유역별 무기단식 적석묘의 분포 현황 및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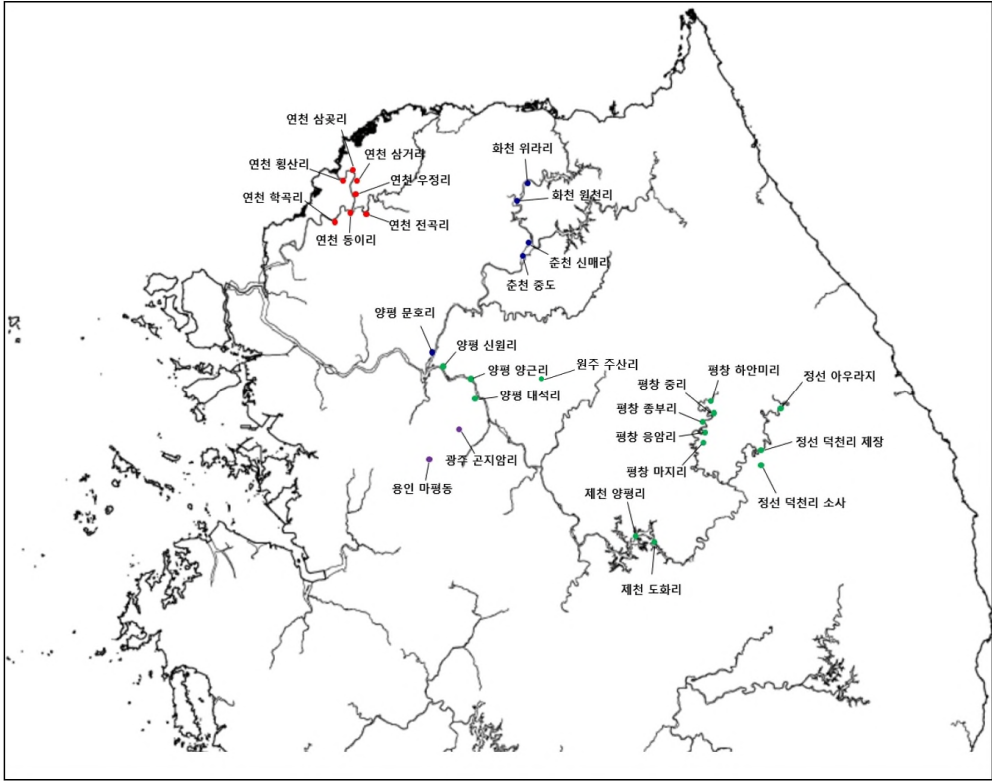
### 1. 무기단식 적석묘의 분포 및 조사현황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하류에 널리 분포하며, 총 28개소 37기가 확인된다(그림 1). 먼저 임진강 유역은 총 7개소 8기가 확인되며, 연천 학곡리, 횡산리, 삼꽃리, 우정리 1호묘는 발굴조사가, 우정리 2호묘, 동이리, 전곡리, 삼거리리는 지표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개성 장학리<sup>2)</sup>에서도 보고되는 것으로 볼 때, 임진강 유역의 북쪽으로도 적석묘가 분포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북한강 유역은 총 5개소 6기가 확인되며, 양평 문호리, 춘천 중도 적석묘는 발굴조사가, 춘천 신매리, 화천 위라리와 원천리 적석묘는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남양주 금남리<sup>3)</sup>, 양평 양수리<sup>4)</sup>에도 적석묘의 존재가 보고되었으나,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2) 연천 횡산리, 삼꽃리 적석묘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강돌 및 할석으로 조성되었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기단식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임진강 유역의 무기단식 적석묘와 비교된다.

3) 1997~1998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4차례에 걸쳐 양평군 화도읍 금남리 일대를 지표조사하면서,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격자문 그리고 승석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을 수습



[그림 1]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분포 현황

남한강 유역은 총 14개소 21기가 확인되며, 제천 양평리와 도화리, 정선 아우라지, 원주 주산리 적석묘는 발굴조사가, 정선 덕천리 소사, 제장, 평창 하안미리, 주리, 응암리, 마지리, 흥부리, 양평 양근리, 대석리, 신원리 적석묘는 지표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강릉 하시동리<sup>5)</sup>, 정선 덕천리 소동<sup>6)</sup>, 음성 월정리<sup>7)</sup>에서도 적석묘가 보고되었으나, 적석묘의 형태,

한 바 있다(유태용·박영재, 2006, 283쪽).

- 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도 적석묘가 보고되었으나(황용훈, 1974), 민가와 경작 등으로 인해 파괴와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적석묘의 원형 파악은 불가능하다(유태용·박영재, 2006, 284쪽).
- 5) 영동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적석묘로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다. 홍영호(2017)는 기존에 조사된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면서, 적석묘 주변에서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잔존 상태가 적석묘의 구조, 규모,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박경신 2020: 36쪽).
- 6) 1996년에 강원도 정선군 덕천리 소동마을 일대를 강릉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석묘의 구조 규모, 출토 유물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 7) 2002년에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일대를 지표조사하였다. 할석을 이용하여 무덤을 축조하였으며, 규모는 지름 4.5m, 높이 2.3m이고 그 둘레가 20m로 보고되었지만, 적석묘의 구조, 성격과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다.

규모,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재검토가 필요한 적석묘도 있어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강 하류에서 총 2개소 2기가 확인되며, 용인 마평동과 광주 곤지암리 적석묘 모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 2. 각 유역별 적석묘의 구조적 특징과 축조시기

### 1) 임진강 유역

#### (1) 입지와 축조재료

강 본류에 인접한 자연사구상에 돌을 쌓아 조성하였다. 일부 적석묘의 경우 현무암과 강돌로 적석묘를 축조하였으며, 학곡리 적석묘의 경우 할석과 강돌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단독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우정리 적석묘만 200m의 간격을 두고 2기가 분포한다.

#### (2) 구조적 특징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는 모두 무기단식 구조이다. 물론 기단식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들도 있다(김성태, 1994 ; 이동희, 1998 ; 유태용·박영재, 2006 ; 최진석, 2008). 이러한 견해는 삼곳리 적석묘에서 확인되는 부석시설과 묘곽 적석부 사이에 편평하게 돌을 깔고, 그 위에 적석을 하는 형태가 마치 기단을 구획한 것으로 본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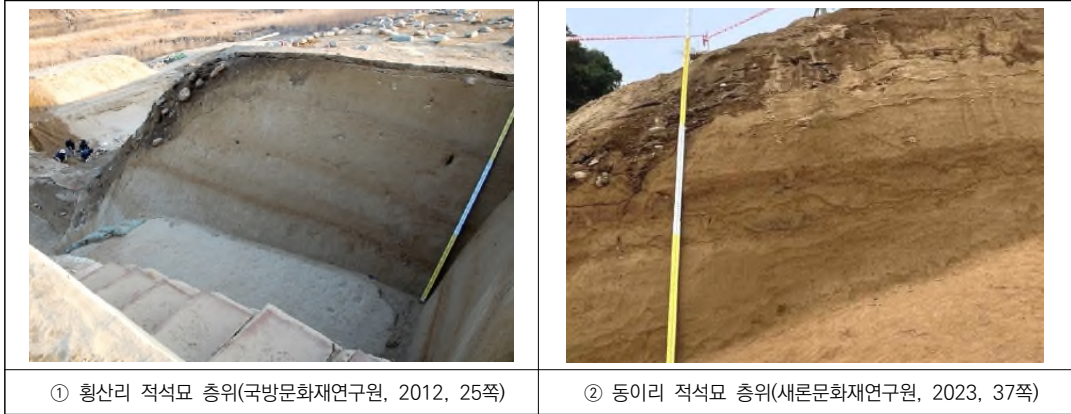
[그림 2] 삼곳리 적석묘 추정 기단 부분(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91쪽)

적석묘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장방형이며<sup>8)</sup>, 매장주체부는 삼곳리와 학곡리 적석묘 모두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굴삭기로 인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정되는 부분 1곳만으로 기단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는 무기단식→기단식→계단식으로 발전한다고 이해하였다(김성태, 2004). 그래서 학곡리 적석묘의 무기단식, 삼곳리 적석묘의 기단식, 개성 장학리의 계단식과 석촌동 고분군의 적석총을 연결시켰다. 그렇지만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에서 기단식 구조를 보이는 적석묘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8) 우정리 적석묘에 대해 기존에 지표조사에서 장타원형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충북대학교박

석곽 구조로 묘곽이 연결된 형태로 확인된다. 연결 구조는 고구려 적석총과는 다르게 기 조성된 무덤에 새로운 무덤을 추가하는 방식이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자연사구상에 일부 성토하고 정지한 후 일정한 높이까지 돌을 쌓고 그 위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하는 축조방식(그림 3)으로, 내부 구조에서도 고구려 적석총과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축조방식

학곡리 적석묘에서 나타나는 다곽식의 구조는 광주 곤지암리, 정선 아우라지 적석묘와 일부 유사한 면이 확인된다. 분구 내에 여러 기의 묘곽이 존재하는 것이 각 묘곽마다 시간 차를 두고 연달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곡리 적석묘가 오랜 시간에 걸친 훼손으로 인해 일부 상실되었지만, 묘곽의 배치와 연결 방향을 볼 때 2~3기의 묘곽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37쪽). 아마도 후대의 교란이나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없었다면, 곤지암리나 아우라지 적석묘와 유사한 형태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횡산리 적석묘는 무덤을 축조하는데 사용된 석재들이 대부분 상실되었고, 적석묘 상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부와 매장주체부는 자연적 훼손과 인위적 파괴로 인해 그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토층 단면을 보면 자연퇴적층에 기초 성토 후 돌을 겹겹이 쌓여서 축조된 것이 확인된다.

삼곡리 적석묘도 무덤의 중심부에서 1m 간격을 두고 매장주체부가 서로 동-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만 학곡리 적석묘처럼 다곽식 구조가 아닌 양곽식 구조로, 고구려의 적석총인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4지구 8·9호분과 비교된다.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우정리 1호묘에서도 잔존부의 동측 적석부 상단에서 남북방향으로 1열의 일정한 석렬이 확인되어 매장주체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23, 19쪽). 다만 취수탑 설치 및 경작지 조성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여 그 구조에 대해서

물관(2023)에서 1호묘 발굴조사를 통해 잔존 형태에 대해서 장방형으로 보고된 바 있다.

는 취수탑을 철거한 후 추가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장법은 현재로서 명확하게 파악이 힘들다. 다만 삼곶리 적석묘의 동·서 묘곽과 삼거리 적석묘에서 인골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의례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축조시기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중심이며, 그 외에 청동제 유물, 철제 유물, 관옥, 낙랑계 토기 등이 확인된다. 우선 학곡리 적석묘에서는 청동방울, 청동환, 철검 외에도 낙랑계 토기와 많은 수의 연주옥과 관옥들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유물은 삼곶리 적석묘와 유사하다. 1호곽 출토 평저호는 2세기 전반으로 보고되었지만(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96~97쪽), 가평 대성리 유적 원삼국시대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경호와 유사하여 그 시기는 3세기로 내려갈 수 있다.

한편, 학곡리 적석묘와 인접한 연천 강내리 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강내리 유적은 몸·凸자형 주거지로 구성된 이 지역의 중심 거점 취락이다. 낙랑계 분형토기가 출토된 39호 주거지의 중심연대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대로 알려졌지만,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고구려계 유물도 출토된다는 점에서 유적의 하한을 4세기 후반까지 내려보기도 한다(신광철, 2022, 25쪽). 그리고 분형토기는 원삼국 III-1기(3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후 점차 소멸한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한다면(박경신, 2018, 151쪽), 학곡리 적석묘의 축조시기는 3세기대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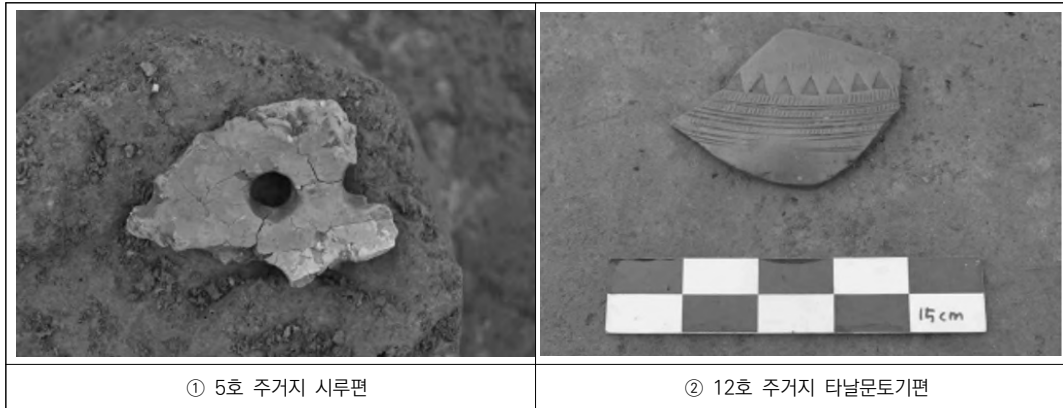
횡산리 적석묘에서는 타날문토기편과 관옥, 철제 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관옥은 학곡리 적석묘 출토품과 유사하며, 철촉은 단경유엽형으로 삼곶리 적석묘의 동쪽 묘곽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철검은 신부가 전체적으로 호형을 그리며 인부 끝단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형태로, 가평 대성리 유적의 원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 유물과 유사하다. 하지만 학곡리 적석묘에서 보이던 낙랑계 토기가 횡산리 적석묘에서는 공반되지 않아 학곡리 적석묘보다 다소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삼곶리 적석묘에서는 돌을 갈아서 만든 작은 구슬들을 엮은 목걸이와 경질무문토기편, 유사승석문이 타날된 단경호, 철촉, 청동환 등이 출토되었다. 동쪽 묘곽에서 출토된 철촉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2~3세기대로 보고되었으나(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57쪽), 출토 유물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3~4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적석묘 인근에 위치한 삼곶리 유적의 경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평행타날문에 횡침선을 두른 것과 저부에 격자타날을 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4세기 중반까지도 내려볼 수 있다. 12호 주거지 출토 호에서도 견부에 평행타날문과 횡침선 그리고 압인된 삼각형 문양 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그림 4] 삼곶리 적석묘의 축조시기 또한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3세기 전엽부터 출현하여 4세기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적석묘뿐만 아니라 인근 취락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며, 특히 낙랑계 토기의 존재는 이들 적석묘 축조집단이 낙랑과 교류를 했던 세력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4] 삼꽃리 취락유적 출토 유물(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174쪽)

[표 2] 임진강 유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세부 속성

유적	축조 재료	평면 형태	규모(m)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축조 시기
				형태	가수		
연천 삼꽃리	강돌	장타 원형	29×11×1.3	석곽	2	경질무문토기편, 철촉, 청동환, 구슬 등	3~4C
연천 횡산리	강돌	장타 원형	45×24×6			타날문토기편, 철모, 철검, 철촉, 관옥 등	3~4C
연천 삼거리						승석문화백색연질토기편, 구슬, 석촉 등	
연천 우정리 1호묘	강돌	장방형 (잔존)	6.3×8.4×1.9			적색연질타날문토기편 회색연질·회청색경질토기편 원통형 관옥 등	3~4C
연천 우정리 2호묘	강돌	장타 원형	75×20×3~7			경질무문토기편, 승석문연·경질토기편 청동팔찌 등	
연천 학곡리	강돌 할석 현무암	장타 원형	25×10×1	석곽	4	경질무문토기, 관옥, 분형토기, 청동환 등	3~4C
연천 동이리	강돌 현무암	장타 원형	41×24×2.5~6				
연천 전곡리		원형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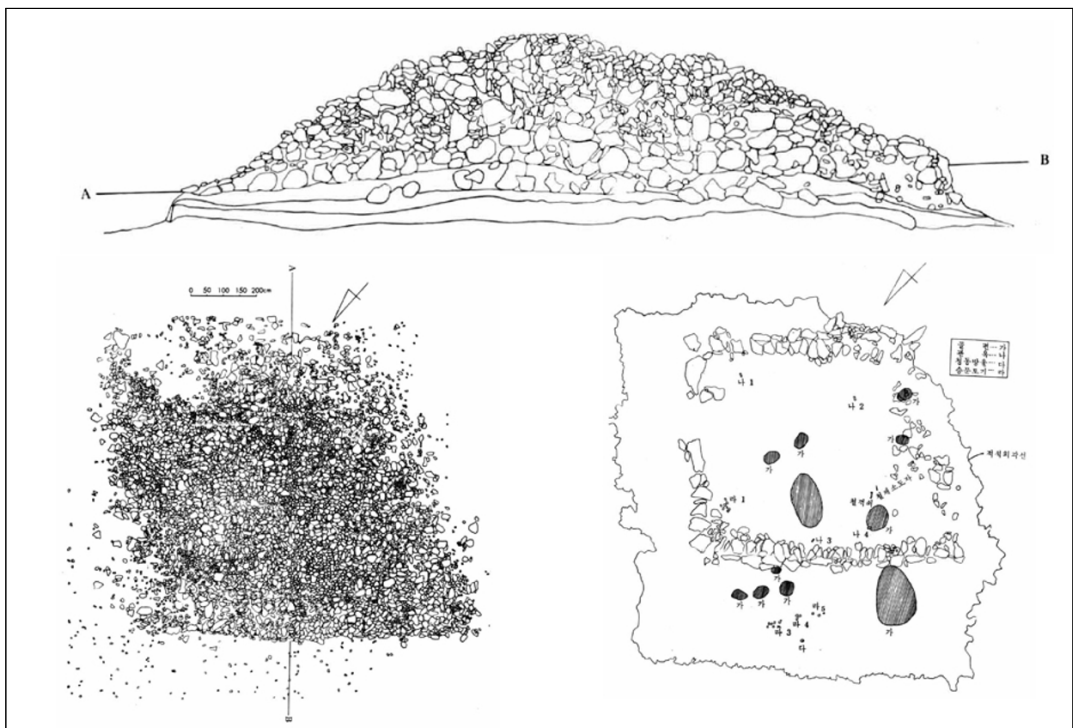
## 2) 북한강 유역

### (1) 입지와 축조재료

대체로 강 본류에 인접한 자연사구상에 강돌과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대부분 단독으로 분포한다. 다만 춘천 중도 적석묘는 2기가 확인되었고 화천 원천리 적석묘도 2기 혹은 연접 형태의 적석묘<sup>9)</sup>일 가능성이 있다.

### (2)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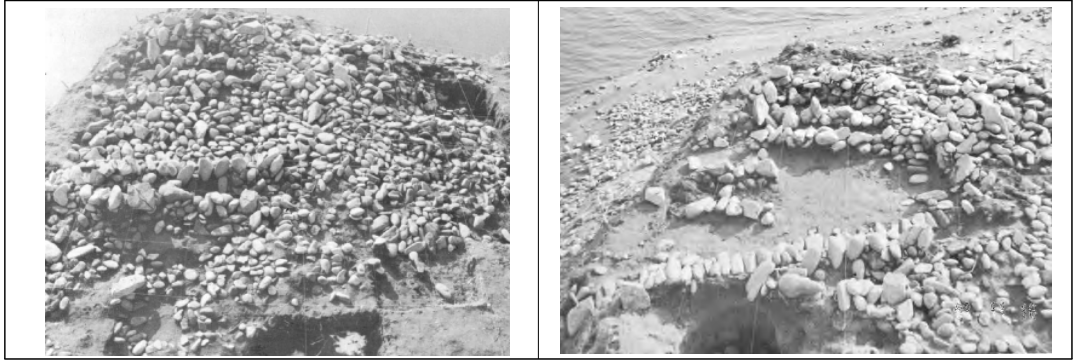
북한강 유역의 적석묘 역시 모두 무기단식 구조이다. 다만 양평 문호리 적석묘를 적석묘의 단면을 보고 3단의 계단식 적석층으로 보고되었지만(황용훈, 1984), 기단식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유태용·박영재, 2006 ; 최진석, 2008). 그러나 별도로 기단을 구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단식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5] 문호리 적석묘 평·단면도 및 묘곽유물배치도(황용훈, 1984, 361~362쪽)

9) 정치영(2018)은 구조상으로 동분과 서분이 4m를 두고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매장주체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석묘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 계열이다. 매장주체부의 경우 문호리 적석묘는 묘곽이 6×7m로 비교적 큰 방형<sup>10)</sup>이며, 중도 적석묘는 묘곽 옆에 축실로 추정되는 공간[그림 6]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두 적석묘 모두 정선 아우라지와 광주 곤지암리 적석묘처럼 연결 형태의 구조였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정치영, 2020).



[그림 6] 중도 적석묘 봉토와 적석 제거 후 전경(좌) 및 묘곽 전경(우)(박한설·최복규, 1982, 66~68쪽)

한편, 문호리, 중도 적석묘는 목곽 내지는 목관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강현숙, 2005, 104쪽). 일정 높이로 강돌을 깔고 목곽을 안치하여, 목곽 주위에 강돌을 돌려 쌓고 그 위로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문호리 적석묘에서는 꺾쇠가, 중도 적석묘에서는 쇠못과 거멸쇠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그 출토 위치가 매장주체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

장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호리 적석묘와 중도 적석묘에서 소량의 인골편이 확인된다. 문호리 적석묘는 순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황용훈 1974), 현재로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묘곽 내부에는 장구 없이 화장한 인골을 뿌리고 돌을 채운 구조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진영, 2022, 29쪽).

### (3) 축조시기

문호리와 중도 적석묘 모두 승석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적석묘에서 낙랑계 토기가 공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진강 유역보다 다소 늦은 3세기 전반부터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호리 적석묘에서 출토된 청동계 유물과 원통형의 관옥이 연천 학곡리, 횡산리 적석묘 출토 유물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문호리 적석묘가 중도 적석묘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문호리 적석묘의 매장주체부에 대해 단곽식으로 보고되었지만, 연천 학곡리, 정선 아우라지, 광주 곤지암리 적석묘처럼 연결 구조의 매장주체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호리 적석묘 인근의 취락유적으로는 795-3번지 유적(수도문화연구원, 2021)과 795-35번지 유적(도원문화재연구원, 2024)이 있다. 795-3번지 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소량의 타날문토기편도 출토되었는데, 정확한 기층 파악은 어렵고 모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구연부편의 경우 호를 그리며 외반하고 경부 아래부터 격자문이 타날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양평 양수리와 가평 대성리 유적 출토 동시기 원저단경호에서도 저부 전체에 격자문이 타날된다는 점에서,<sup>11)</sup> 795-3번지 유적은 2세기부터 3세기대로 보고된 바 있다. 그렇지만 문호리 적석묘의 경우에는 관옥과 청동방울이 임진강 유역 적석묘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3세기 전반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북한강 유역의 취락유적은 임진강 유역처럼 춘천 신매리와 화천 거례리 유적 등에서 낙랑계 토기들이 확인된다. 다만 낙랑계 토기들은 3세기대를 기점으로 점차 소멸하고, 문호리와 중도 적석묘에서는 낙랑계 토기가 공반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석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과 주변 취락유적과의 유물도 참고하면 3세기대부터 조영되어 4세기대까지 축조 전통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북한강 유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세부 속성

유적	축조 재료	평면 형태	규모(m)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축조 시기
				형태	기수		
화천 위다리	강돌 할석		45×26×4.5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화천 원천리	강돌 할석	장방형	42.5×15.5×1.5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심발형토기	
춘천 신매리	강돌						
춘천 중도	강돌 할석	방형	6.3×8.4×1.9	석곽	1	경질무문토기편, 승석문 격자문토기편 심발형토기, 청동귀걸이, 철도자, 철정, 철촉	3-4C
양평 문호리	강돌	방형	75×20×3~7	석곽	1	경질무문토기편, 승석문 격자문토기편 청동방울, 관옥, 철정	3-4C

### 3) 남한강 유역

#### (1) 입지와 축조재료

남한강 유역의 적석묘 역시 강과 인접한 자연사구상에 강돌이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단독으로 조영되고 있지만, 제천 양평리 적석묘와 평창 중리 적석묘에서 2기, 정선 덕천리 소사 적석묘에서 6기가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11) 양평 문호리 795-3번지 유적의 구상유구 2호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저부에서도 격자문이 타날되어있다(수도문화연구원 2021: 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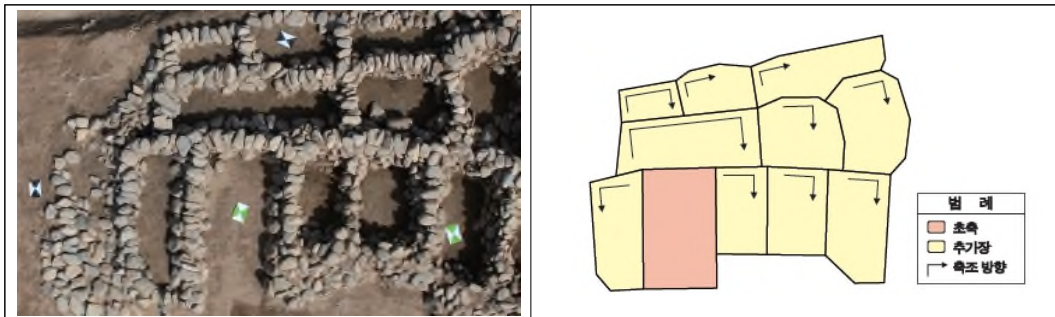
### (2) 구조적 특징

기본적으로 모두 무기단식 구조이다. 도화리 적석묘에 대해 3단의 기단식 적석묘로 보는 주장도 있지만(최몽룡 외, 1984, 698쪽), 기단을 구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대체로 남한강 유역의 적석묘 역시 무기단식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석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방형, 장타원형, 타원형 등 다양하며, 매장주체부의 경우 양평리, 도화리, 아우라지 적석묘에서 석곽의 구조로 확인된다. 특히 아우라지 적석묘는 광주 곤지암리 적석묘와 함께 다수의 묘곽이 연결된 구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묘곽은 그 수량만 해도 50여기에 달하며, 한쪽 벽면에 달아서 새로운 묘곽을 만드는데 기존 묘곽 내부 한 쪽 벽면만 돌을 세워 보강한 흔적이 발견된다(그림 7). 이러한 구조는 연천 학곡리 적석묘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으로, 연결 형태를 보여주는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대표적인 축조 방식으로 고구려의 적석총과 다른 구조이다. 최근 조사된 원주 주산리 적석묘 역시 연결식 다곽묘로, 현재 1,2호만 확인된 상태이지만 추정 묘곽은 최소 10기 정도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23).

제천 양평리와 도화리 적석묘 역시 매장주체부가 연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정치영, 2020), 매장주체부가 고려시대 때 민묘로 인해 교란이 되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양평 문호리 적석묘처럼 수몰된 상태이고 기존 조사 및 보고 내용이 소략하여 현재로서 정확한 유구의 양상을 검토할 수가 없다.

장법은 제천 양평리와 도화리, 정선 아우라지, 원주 주산리 적석묘 모두 인골편이 확인되면서 남한강 유역의 적석묘 역시 어떠한 의례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아우라지 적석묘 축조 모식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19, 636쪽)

### (3) 축조시기

주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중심이며, 제천 양평리와 도화리 적석묘에서는 청동제 유물, 철제 유물, 관옥과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제 유물과 관옥은 임진강 유역, 북

한강 유역의 적석묘 출토 유물과 유사하다.

우선 도화리 적석묘의 시기는 출토된 청동마탁, 청동방울 등을 통해 2세기에서 3세기대로 보고된 바 있다(배기동, 1984, 631쪽). 그렇지만 출토된 철검의 형태가 선단부 폭이 좁아지는 ‘다형’으로(김승옥, 2011, 98쪽), 3세기에서 4세기대로 편년하였다. 양평리 적석묘 역시 도화리 적석묘와 유사한 출토 유물로 판단하여 비슷한 시기로 본다. 그리고 이들 적석묘에서 출토된 철모는 관부가 완만하게 축약되는 형태인 E1b다의 유형으로(한지민, 2022, 77쪽), 4세기 중엽에서 말엽에 해당한다.

아우라지 적석묘는 2번 묘곽에서 내부퇴적토 제거 중에 백제계의 회청색 타날문토기가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직구호와 유사하여 주목된다[그림 8]. 출토된 직구호는 사격자문이 시문된 흑색마연토기이며, 아우라지 적석묘에서 출토된 토기편도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화천 원천리 유적의 흑색마연토기 시기는 4세기 전엽에서 중엽으로 보고 있으며(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100쪽), 아우라지 적석묘 역시 4세기대부터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아우라지 적석묘 및 화천 원천리 유적 출토 직구호 비교

하지만 아우라지 적석묘에서 신라 토기인 대부배와 대부장경호가 출토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양상이 경주지역에서 확인된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19, 645쪽). 그 시기는 5세기에서 6세기대로 편년되어,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 중에 가장 늦은 시기까지 적석묘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라 주거지와 임계리에서 신라 고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정선지역에 신라가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라 토기가 적석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우라지 적석묘 역시 기존의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가 축조되던 시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12)</sup>

한편, 최근 조사된 주산리 적석묘는 1호 묘곽에서 출토된 유리제 연주옥이 연천 학곡리에

12) 정선 아우라지 적석묘의 축조시기에 대해 연천 학곡리 적석묘, 제천 양평리 2호묘와 같이 3세기 전반에서 4세기 후엽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라 토기가 확인되는 것은 적석묘가 폐기된 후 신라 영향권에 들어와 현지인들이 일시적으로 무덤을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김진영, 2019: 44쪽)

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로 보고 있는 점에서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와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남한강 유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3세기대부터 조영되어 6세기대까지 축조 전통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표 4] 남한강 유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세부 속성

유적	축조 재료	평면 형태	규모(m)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축조 시기
				형태	기수		
정선 아우라지	강돌	장방형	42.1×17.3	석곽	51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대부배	4~6C
정선 덕천리 소사	강돌	장타 원형	직경 6×1.2				
			직경 5.3×1.5				
			직경 4.5×1.7				
			직경 3×1				
			직경 2.3×1				
정선 덕천리 제장	강돌	장타 원형	10.2×5.2×2.2				
평창 하안미리	강돌	장타 원형	65×26×1.5~2.3				
평창 중리	강돌	장방형	11.6×19.5×2.5				
			8.3×14×2.5				
평창 마지리	강돌		지름15~20×2.5				
평창 중부리	강돌		지름60.5×3			무문토기편	
평창 응암리	강돌		지름25×1.2			경질무문토기, 철도자	
제천 도화리	강돌	타원형	30×25×4.5	석곽	1	타날문토기편, 청동환, 청동팔찌, 철정, 철부, 철도자, 관옥, 환옥	3~4C
제천 양평리 1호묘	강돌 할석	타원형	29×25×7.2	석곽	1	승석문타날단경호, 청동마탁, 청동환, 철도자	3~4C
제천 양평리 2호묘	강돌 할석	타원형	60×47×9	석곽	1	타날문토기편, 환두대도, 청동환, 청동방울, 철검, 철촉, 철제골, 철도자, 관옥	3~4C
양평 대석리	강돌	방형	12.5×12.5×1.7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양평 양근리	강돌 할석	장타 원형				철검, 토기편	
양평 신원리	할석	방형	16.5×15.8×0.5			경질무문토기편, 흑갈색마연토기편, 철정	
원주 주산리	강돌	타원형	15×15×3.5	석곽	2	타날문토기편, 유리제환옥, 연주옥	3~4C

#### 4) 한강 하류

##### (1) 입지와 축조재료

한강 합류로 합수되는 지류 유역인 경안천 일대에 위치하며, 강과 인접한 충적대지 상에 자리한다.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단독으로 조영되었으며, 축조재료에서 용인 마평동 적석묘는 할석으로, 광주 곤지암리 적석묘는 강돌로 축조하였다.

##### (2) 구조적 특징

모두 무기단식 구조이다. 다만 마평동 적석묘의 동·서쪽 부분에 기단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기단식으로 보지만, 별다른 기단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한강 하류 적석묘 역시 무기단식 구조로 판단된다.

적석묘의 평면형태는 원형 계열이며,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석곽 구조이다. 특히 곤지암리 적석묘는 80기의 묘곽이 확인되었으며, 일정 단위마다 묘곽을 연속하여 확장하는 다곽식의 연접묘이다. 이는 연천 학곡리, 정선 아우라지, 원주 주산리 적석묘와 유사한 구조이다.

마평동 적석묘 역시 연접묘로 추정하고 있다. 적석묘 정상부의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추정 매장주체부 2기가 확인되면서, 본래 다곽식이었거나 다곽을 염두하고 적석묘를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문화재단, 2020, 36쪽). 추정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향으로, 우측 2호가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묘곽의 크기는 곤지암리 적석묘의 묘곽 크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적석묘의 서쪽과 북쪽은 근래에 축조된 건물로 인하여 교란되었고, 동쪽 또한 건물 및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파괴되어 정확한 구조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매장주체부로 추정된 곳은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과연 매장주체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장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역의 적석묘처럼 곤지암리 적석묘에서도 15기의 묘곽에서 인골편들이 출토되었다. 낮은 온도에서 화장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묘곽 내에서 성년과 미성년 개체의 인골편들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 (3) 축조시기

두 적석묘 모두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중심이다. 마평동 적석묘에서 출토된 토기편은 제천 도화리 적석묘와 유사하다. 그리고 철모의 경우 전장이 25cm 미만으로 단장이고 관부는 유관식, 공부의 형태는 연미형, 공부 하단에 투공이 있는 형태로 보아 대체로 4세기대로 추정하였다(한국문화재단, 2020, 37쪽). 다만 출토된 철모는 도화리 적석묘와도 유사하며, 4세기 중엽에서 말엽으로 보고 있다. 곤지암리 적석묘는 관옥, 환옥, 유리구슬로 제작된 치레걸이를 비롯한 타날문단경호와 청동방울 등이 확인된다. 특히 원통형의 관옥은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와 양평 문호리 적석묘 출토 유물과 유사하다.

경안천 유역에 주변 취락유적으로 광주 장지동과 곤지암리, 용인 고림동 유적이 주목된다. 특히 광주 곤지암리 취락유적은 경안천 유역에서 조사된 가장 규모가 큰 취락으로 유물의 출토량도 많다. 적석묘 주변에도 위치하여 곤지암리 적석묘를 축조한 집단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경안천 유역의 취락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중심이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질수록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비율이 낮아지며, 타날문토기와 한성백제양식 토기가 그 기능을 대체하면서 수량이 감소한다. 한성백제양식 토기의 경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에 비해 출토량이 많지는 않지만, 용인 고림동 유적에서 다량의 기종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점차 경안천 유역으로 백제의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본다.

이들 경안천 유역 취락유적의 연대는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구조 그리고 출토 유물의 양상을 통해 광주 장지동 유적은 2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 광주 곤지암리 유적은 3세기 전반부터 4세기 전반, 용인 고림동 유적은 3세기 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정지영, 2019). 특히 용인 고림동 유적은 고배와 개배를 비롯한 한성백제 양식 토기들은 백제 중앙과의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백제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4세기 후반부터 고림동 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의 수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보면 점차 한강 하류의 무기단식 적석묘도 3세기에서 4세기대까지 적석묘 축조 전통이 이어지다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IV.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양상과 축조집단 검토

### 1. 전개양상

#### 1) 무기단식 적석묘의 구조 및 형태양상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대부분 강변 근처 충적대지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강돌이나 할석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sup>13)</sup>.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역의 적석묘들은 강의 본류역에 분포하지만, 남한강 유역과 한강 하류는 지류역에서도 적석묘들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자연적으로 훼손 및 멸실되거나 교란으로 인해 본래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축조할 당시 자연사구의 형태에 따라 돌을 쌓아 조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매장주체부 역시 대부분 교란으로 인해 훼손된 상태에서 조사되어 그 성격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정선 아우라지, 광주 곤지암리, 원주 주산리 적석묘

13) 주로 강돌을 사용하며, 일부 할석이 사용된 적석묘의 경우, 입석으로 사용되거나 강돌 사이에 배치되어 구조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민규, 2023, 36쪽).

가 조사되면서 연결된 구조로 석곽들이 여러 기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조사되었던 연천 학곡리와 삼곡리, 양평 문호리, 춘천 중도, 제천 양평리와 도화리 적석묘 등도 본래 묘곽이 연결된 형태의 수 기의 매장주체부가 더 존재했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축조방식으로는 모두 자연사구상에 대지를 정지한 후 돌을 쌓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용인 마평동 적석묘는 대지정지 후 인위적인 성토 보축을 하고 돌을 쌓아 축조한 것으로 다른 무기단식 적석묘들과 차이를 보이는 견해가 있다(김진영, 2022 ; 이민규, 2023). 그리고 조사 당시에도 대지조성→1차성토→1차적석→2차성토→2차적석 등 5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축조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국문화재단, 2020).

특히 추정 매장주체부가 지면이 아닌 분구 중간에 위치하는 점, 석촌동 고분군의 대형 적석총처럼 할석이 주 축조재료인 점,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은 백제와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구 중간 위로는 근래에 축조된 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파괴되어 추정 매장주체부를 비롯하여 구조적인 면에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우라지 적석묘도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고 인근에 신라 고분들도 확인되어 신라 중앙과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구조적 특징과 축조방식이 확인되고 그 축조 전통이 이어진 것을 보면, 마평동 적석묘는 아우라지 적석묘와 다르게 그 구조적인 면에서 일시적으로 백제 중앙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유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아니면 본래 대지를 정지하고 돌을 쌓는 무기단식 적석묘의 기존 축조방식을 이어왔지만, 인위적 훼손으로 인해 파괴되어 인위적인 성토 보축을 한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는 그 구조적 특징에서 각 유역별 큰 변화 없이 공통된 구조와 축조방식들이 확인된다. 다만 마평동 적석묘만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축조방식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 2) 출토유물로 본 무기단식 적석묘의 전개양상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 자료를 통해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연천 학곡리 적석묘에서 확인되는 낙랑계 토기를 비롯하여, 청동계 유물, 철계 유물, 많은 수의 관옥과 연주옥들이 출토되어 3세기 전엽에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출토 유물의 양상은 학곡리 적석묘뿐만 아니라 각 유역의 무기단식 적석묘 모두에서 확인된다.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학곡리와 삼곡리 적석묘에서 출토된 청동환은 서로 유사한 형태이며, 횡산리와 삼곡리 적석묘 출토 철촉 역시 유사하다. 다만 낙랑계토기가 공반된 학곡리 적석묘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적석묘 인근에 중심 거점 취락인 강내리 유적에서 학곡리 적석묘 출토 분형토기와 유사한 점(황윤희, 2013, 66쪽)과 삼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편과 시루편을 통해 임

진강 유역 적석묘의 조영시기는 4세기 중반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 유역의 문호리와 중도 적석묘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한설·최복규, 1982 ; 유태용·박영재, 2006). 두 적석묘 모두 승석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편이 확인되어, 그 시기는 3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다만 문호리 적석묘에서 출토된 청동방울과 관옥이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 출토품과 유사하여, 임진강 유역과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근에 취락유적인 문호리 795-3번지 유적의 중심연대도 2세기부터 3세기대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문호리 적석묘의 시기를 2세기부터 볼 수 없으며, 출토 유물의 양상이 임진강 유역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3세기 전반부터 적석묘가 조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적석묘는 출토된 직구호, 광구단경호, 심발형토기를 통해 그 시기를 석촌동 고분군의 무덤 층위와 비교하여 파악하기도 한다. 중층-b층위에 분포하는 것 중 중도 적석묘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토기가 분포하여, 그 시기는 4세기 중엽까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심발형토기가 승석문과 격자문이 타날되어있고,<sup>14)</sup> 이러한 문양은 중도동 G3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예 맥문화재연구원, 2017, 731쪽)과 함께 그 중심연대는 3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따라서 북한강 유역의 적석묘는 임진강 유역과 비슷한 시기에 조영되어 4세기대까지 적석묘 축조 전통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9]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 출토 청동제 유물 비교

14) 타날문양에 대해 박경신(2018)의 연구를 참고하면, 타날문호가 3세기를 지나면 동최대경이 중상위에서 중위로 이동하고 타날의 변화양상이 승문+승문→승문+격자문→승문+저부 깎기로 제작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승문+격자문이 나타나는 시기는 중도동 G3구역의 4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17,22번 유물과 2호 매납유구에서 출토된 53번 유물을 통해 3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남한강 유역의 적석묘 역시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와 비슷한 시기로 보고 있다. 도화리 적석묘에서 출토된 청동마탁, 청동방울 등을 통해 2세기대에서 3세기대로 보고된 바 있지만(배기동, 1984, 631쪽), 철검과 철모를 통해 그 시기를 3세기대에서 4세기대로 편년된다. 섬강 일대의 주산리 적석묘에서도 연주옥이 출토되었는데, 학곡리 출토 유물과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아우라지 적석묘는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타날 문양과 유사한 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상한을 4세기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신라 양식인 대부배,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들이 경주 쪽샘지구, 신라 황남대총 등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기종들과 유사하며(강원문화재연구소, 2019), 그 하한을 6세기대로 보고 있다.

인근 취락유적인 예미리 유적의 중심 연대도 3세기에서 4세기대로 편년되어 적어도 적석묘의 조영시기는 4세기부터 조영되어 6세기대까지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했음에도 적석묘 축조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한강 하류의 광주 곤지암리 적석묘 역시 관옥, 청동방울 등이 출토되어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의 적석묘 출토 유물 양상과 동일하다. 곤지암리 적석묘 묘곽에서 출토된 타날문 단경호로 볼 때 3~4세기대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석묘 주변에 분포한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구조,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 양상을 통해 그 중심시기는 4세기대로 짐작하고 있다.

마평동 적석묘는 출토된 토기편과 철모가 도화리 적석묘와 유사하고 철모의 경우 4세기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안천 유역의 취락유적들도 대체로 그 상한이 2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까지로 편년된다. 따라서 한강 하류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출토 유물 양상을 통해 살펴보면 적어도 3세기 전반부터 조영되어 4세기대까지 축조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현재로서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3세기 전엽부터 적석묘가 조영된 것으로 본다. 이후 북한강 유역, 한강 하류, 남한강 유역으로 전개되면서 가장 늦은 시기인 6세기대까지 적석묘 축조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 2. 축조집단

그동안 축조집단에 대해 구조적 특징이 서로 다른 석촌동 고분군과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를 한꺼번에 묶어 설명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적석묘의 기원, 계통, 축조집단을 비롯하여 명칭이나 세부 구조 및 축조 시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수물 및 멸실되거나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유구의 훼손이 심하며, 출토 유물도 소량으로 인해 축조집단에 대한 추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발

굴조사 된 적석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과 인근 취락유적의 몸·凸자형의 주거지들이 공통되는 점 그리고 3세기대부터 광범위한 곳에서 적석묘가 축조되어, 입지와 축조재료, 매장 주체부, 장법 등이 서로 유사한 것은 동일한 문화권 내의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적석묘와 인근 취락유적에서 낙랑과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되는 점은 낙랑과 교류를 하는 집단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백제와 신라의 중앙 세력들이 점차 진출함에 따라 적석묘 축조 전통이 중단되는데, 이는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하류에서 모두 확인된다. 먼저 임진강 유역은 낙랑계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유적과 적석묘들은 연천, 파주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주거지가 확인되는 연천 강내리 유적이 중앙 거점 취락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곡리 적석묘와 비교적 가까운 곳인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가 확인되지만, 한성백제 양식의 토기들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바로 96-7호 주거지에서 합, 개배, 대옹, 시루, 직구호류가, 96-8호 주거지에서는 합의 건부에 요철이 장식된 형식과 함께 무개 및 유개 고배, 다량의 주조철부 등이 출토되었다(한지선, 2018, 54-55쪽). 이는 점차 임진강 유역에 백제의 문화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세력 확장과 함께 임진강 유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점차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적석묘가 조영되는 시기에 주변 묘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들은 전통적 묘제인 무기단식 적석묘를 조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 유역의 축조집단 역시 본래 낙랑과 교류를 했던 집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적석묘 출토 유물에서 임진강 유역 적석묘의 출토 유물과 유사한 청동방울과 관옥이 출토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도 적석묘에서 한성백제 토기의 초기 양식인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어 북한강 유역도 백제의 문화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적석묘 주변에 취락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가 출토되지만, 3세기대를 기점으로 소멸하면서 화천 원천리 유적, 춘천 하중도 유적 등에서 백제 유물이 출토된다. 따라서 북한강 유역도 백제가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중앙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적석묘 축조 전통이 유지되다가 백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차 축조가 중단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한강 유역도 양평리와 도화리 적석묘에서 출토된 청동제 유물이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역의 적석묘 출토 유물과 유사하여 서로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축조집단 역시 비슷하게 낙랑과 교류를 했던 집단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류의 정선 아우라지 적석묘에서 신라 토기인 대부배와 대부장경호가 확인되어 두 유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아우라지 적석묘뿐만 아니라 정선지역에 신라 고분과 주거지 그리고 토기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점차 신라에 영역 진출과 함께 신라 문화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적석묘라는 전통 묘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우라지 적석묘 축조집단은 신라의 중앙 세력이 아닌 돌을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축조하는 현지세력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적석묘 역시 결국에는 정선지역에 유입된 신라 문화로 인해 그 축조가 중단되게 됨은 물론이다.

한강 하류의 축조집단 역시 다른 유역과 마찬가지로 곤지암리 적석묘에서 관옥과 청동방

울이 출토되는 양상은 임진강 유역, 북한강 하류, 남한강 중류의 무기단식 적석묘와 동일하다. 적석묘를 축조한 집단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는 광주 장지동, 곤지암리, 용인 고림동 유적 역시 뿔·뿔자형의 주거지들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질무문토기 용, 시루, 원저단경호, 회색무문양토기 소호, 심발형토기 등 원삼국시대부터 한성백제기 토기가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3세기 전반부터 승석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와 함께 한성백제기 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한강 하류 역시 백제 중앙의 문화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인 고림동 유적은 한성백제기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기종 구성이 다양하며, 고배와 개배를 비롯하여 백제 중앙 토기 양식과의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정치영, 2019). 그러므로 한강 하류의 지역도 백제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백제 문화가 유입되었고, 적석묘라는 전통 묘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한강 하류의 축조집단도 백제의 중앙 세력이 아닌 현지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골편이 적석묘마다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의례적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용훈(1974)은 순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곤지암리 적석묘에서 화장한 인골편들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석촌동 1호분 북쪽으로 방형의 중·소규모 적석묘들이 다수가 연접되어 확인되는데, 먼저 축조된 적석묘에 다른 적석묘를 이어 붙여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묘역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서 적석묘들 사이에 화장된 인골편들이 확인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장법에 대해 화장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정치영, 2020, 139 쪽). 그래서 다수의 적석묘들이 연접되는 양상과 화장한 인골편들이 확인되는 공통점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백제와 신라의 성장과 함께 점차 중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백제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도 적석묘 축조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을 보면, 백제나 신라의 중앙 세력과는 다른 세력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세력이 거주한 범위는 뿔자형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적석묘가 확인되는 분포양상을 통해 ‘중도 유형’ 또는 ‘중도문화’로 이해되고 있다(박순발, 2001 ; 박경신, 2018 ; 정치영, 2020). 특히 이 범위에는 적석묘뿐만 아니라 미호천 유역과 충주 일대에 토광묘를 기본으로 하는 집단이 거주하여, 마한의 중심국이었던 목지국에 버금갈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마한 소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성정용, 2013). 그리고 한강 이남의 토광묘 문화는 한(韓)의 문화 양상을, 임진강 유역,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하류 등지에서 발견되는 적석묘 계통은 예계(濊系) 문화를 대표한다고 보고 있다(성정용·양시은, 202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한지역의 무기단식 적석묘는 출토 유물의 양상과 취락유적의 주거지 유형이 서로 유사하며, 3세기대부터 적석묘가 조영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6세기대까지 그 축조 전통이 이어졌지만, 백제와 신라가 점차 진출함에 따라 적석묘 축조 전통은 중단되었고, 이들의 중앙 묘제가 아닌 돌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보면 백제와 신라의 중앙 세력이 아닌 예계 문화권의 현지세력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남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무기단식 적석묘를 대상으로 그 구조적 특징과 축조시기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적석묘의 전개양상과 축조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적석묘는 외형과 연접 형태 그리고 자연사구상에 적석을 함으로써 고구려 적석총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축조방식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차이를 보이며, 연천 학곡리, 광주 곤지암리, 정선 아우라지, 원주 주산리 적석묘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한 쪽 벽면에 달아서 새로운 묘곽을 만들고 기존 묘곽 내부 한 쪽 벽면만 돌을 세워 보강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고구려 적석총 구조와는 다른 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주위에 적석을 하는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대표적인 축조방식으로 생각한다.

적석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중심이다. 특히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하류, 남한강 중류, 한강 하류 일대의 적석묘에서 청동제 유물과 관옥이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인근 취락유적의 주거지 유형 역시 유사한 면을 보여 동일한 문화권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북한강 상류의 춘천 중도 적석묘에서는 한성백제 토기가, 남한강 상류의 정선 아우라지 적석묘에서는 신라 토기가 확인되었다. 적석묘 인근 취락유적에서도 역시 한성백제 토기와 신라 토기가 출토되면서 점차 백제와 신라의 문화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지역 무기단식 적석묘의 축조시기는 3세기 전엽에 임진강 유역에서 출현하여 남한강 유역에서 6세기대까지 적석묘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 축조집단은 백제와 신라가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문화가 유입되어왔음에도 적석묘 축조 전통이 이어진 것을 보면 백제나 신라의 중앙 세력과는 다른 돌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예계 문화권의 현지세력이었던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투고일: 2024.11.02,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 강현숙, 2005, 「서울지역의 적석총에 대하여」, 『향토사학』66.
- 강현숙·최종택·양시은,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권오영, 1986, 「초기백제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론』15.
- 김병곤, 2007,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과 마한」, 『동국사학』43.
- 김성태, 2018,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김승옥,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 『한국상고사학보』71.
- 박경신, 2020, 「원삼국시대 중동부문화권 주거 연구」, 『고고학』19-3.
- 박순발, 1994, 「한성백제 성립기 諸墓制의 편년 검토」, 『선사와 고대』6.
- 성정용, 2013, 「중원 지역 원삼국시대 분묘 축조 집단의 성격」, 『고고학』12-3.
- 성정용, 양시은, 2021,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활용 방안」, 『문화재』54.
- 신광철, 2022,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삼국 각축의 현장, 임진강 (한국고대사탐구학회·한성백제박물관 공동 개최 학술대회)』.
- 심재연, 2010, 「한성 백제기 한강 중·상류지역의 적석총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39.
- 오강원, 1996, 「춘천지역 석실분 유적에 관한 연구—고분의 계통과 축조집단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1.
- 유태용·박영재, 2006, 「백제 적석총의 분포와 성격에 대한 일고」, 『백산학보』75.
- 이동희, 1998, 「남한지역 고구려계 적석총에 대한 재고」, 『한국상고사학보』28.
- 이동희, 2008, 「최근 연구성과로 본 한강·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성격」, 『한국사학보』32.
- 이성주, 2000, 「분구묘의 인식」, 『한국상고사학보』32.
- 이형구, 1993, 「고구려와 백제와의 문화적 관계 : 고구려와 백제의 적석총과 향당제도」, 『백제 연구총서』3.
- 임성빈, 2017, 「춘천 중도 적석총의 기원과 형성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2003, 「적석총으로 본 백제 건국집단의 남하과정」, 『선사와 고대』19.
- 정지영, 2019,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안천유역 주거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치영·윤정현·최진석·심재연, 2018,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 적석총의 현황과 구조」, 『백제학보』26.
- 정치영·윤정현·최진석·강다혜·최재도, 2019, 「새로 찾은 양평 양근리 적석총의 현황과 특징」, 『백제학보』30.
- 정치영, 2020,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제3회 강원 고대문화연구 심포지엄 학술자료집』.
- 최몽룡, 1989, 「漢城時代 百濟의 領域과 文化」, 『한국고고학보』22.

- 최진석, 2008, 「백제 적석총의 형식 및 편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민, 2022, 「중서부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철모의 전개와 지역적 양상」, 『한국고고학보』 122.
- 한지선, 2018,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황윤희, 2013, 「임진강 유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외래계 유물의 출토현황과 성격」, 『한국기독교박물관지』9.
- 홍영호, 2017, 「강릉 하시동 돌무지무덤 소개와 역사성 검토」, 『박물관지』24.
- 홍주희, 2013, 「북한강 유역 원삼국시대 외래계토기」, 『한국기독교박물관지』9.

○ 발굴보고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Abstract】**

## The Development Aspect and Construction Group of Non-stylobate The Stone-Mound Tomb in South Korea

Park, Seong-hyeon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Non-stylobate The Stone-Mound Tomb in South Korea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Imjin River basin, the Bukhan River basin, the Namhan River basin, the downstream of the Han River. These stone tombs are basically characterized by a single or several burial chambers placed in a single stone mound. In the case of group tombs, it was created by adding a new tombstone using one wall of the existing tombstone. It is distinct from Goguryeo's Jeokseokchong that there are several burial bodies in one.

The origin of the stone tombs in the South Korean region has not yet been clearly identified,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data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is necessary.

However, at present, it is known that the tradition appeared in the Imjin River basin starting in the 3rd century and gradually spread to the Bukhangang River basin, the lower reaches of the Han River, and the Namhangang River basin through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stone tombs and nearby settlement sites in each basin, and in the case of the Jeongseon Auraji stone tomb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tradition continued until the 6th century.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construction group of Non-stylobate The Stone-Mound Tombs, including Goguryeo, Baekje, Yae, and Mahan. It is not easy to pinpoint a specific race or group. However, despite the influx of the central culture of Baekje and Silla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Non-stylobate The Stone-Mound Tomb, the tradition of The Non-stylobate The Stone-Mound Tomb is maintained. Unlike Baekje and Silla, it can be assumed that it is a "local force" in the culture of Yae(濊), where stones were traditionally used in tombs.

<p><b>Keywords</b> : Southkorea, The Non-stylobate The Stone-Mound Tomb, Connection, Development Aspect, Construction Group</p>
---